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⑧ '폭싹 속았수다'(2025)

역사를 살아내온 우리 모두 '장하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처음 공개될 즈음, 올해를 대표하는 드라마로 꼽힐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막상 16부까지 드라마 전체가 공개되고 나니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인 반응이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라거나 '최애 인생 드라마'라는 평가가 쏟아졌고 그 여운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한 달 넷플릭스 월간 사용자 수가 1400만이 넘은 것은 덤. 〈글로리〉가 공개되었던 2023년 1월 이후로 두 번째라고 한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1951년생 오애순(배우 이지은/문소리)의 70년 인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이다. 그리고 애순의 곁에서 사계절을 함께 살아낸 남편 양관식(배우 박보검/박해준)의 이야기이다. 드라마는 이 둘의 서사를 중심으로 큰딸 양금명(배우 이지은)의 이야기를 비중있게 다루면서도 애순의 가족과 관식의 가족, 해녀 3인방과 부상길(배우 최대훈) 가족까지 거의 모든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골고루 담아내고 있다.

지난번에 작가의 전작인 〈동백꽃 필 무렵〉을 거론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이자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드라마라고 했는데 이런 기조는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애순이 부부를 보며 우리네 부모를 떠올리고, 금명이를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할 만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으면서, "덕 쌓고 살어라. 덕도 업도 고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거나 "제비의 박씨는 운이 아니라 흥부가 따낸 포상"이라며 선한 행동의 결과가 기적이 되어 다가오는 불교적인 도리를 전한다.

〈동백꽃 필 무렵〉 '엄마, 媽媽, mother' (15회) 편을 보면 까불이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동백을 엄마인 정숙이 구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애순을 엄마의 촉으로 구하는 광례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러한 모성은 애순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금명을 제주도에서 날아온 애순이 살리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폭싹 속았수다〉에서는 어머니인 애순 못지않게 아버지인 관식도 금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사적이다. 작은 배의 선장으로 하루 다섯 끼를 먹어야 할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번 없이 자식을 위해 살아온 관식은 언제나 "힘들면 빠꾸해. 아빠 항상 여기 있을게"라며 금명을 응원한다. 어떤 순간에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가장의 모습과 부모의 사랑을 전면으로 내세운 점에서 〈동백꽃 필 무렵〉과 구별되는 〈폭싹 속았수다〉만의 특징이 있다.

〈동백꽃 필 무렵〉에 주인공 동백의 본래 모습을 꺼내어주고 자존감을 북돋아 준 용식이 있다면 〈폭싹 속았수다〉에는 애순을 향한 사랑만으로 똘똘 뭉친 팔불출 무쇠 관식이 있다. 어린 시절,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순의 꿈을 듣고 자기는 '영부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관식은 애순이 자신의 본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애순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금명에게는 새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줄 용식이나 관식이 필요 없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을 뿐이다. 금명의 남편이 마마보이 영범(배우 이준영)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존중받고 자란 충섭(배우 김선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포스터. 사진출처=넷플릭스

'등 두드려주는 손'은 세상 모든 부모 사랑 상징
가치 알아준 광례 · 관식 덕에 애순 세상은 꽃밭
아픈 현대사와 문학 감성 담긴 역사의 '서사시'

소녀 애순이 소년 관식에게 한 "소 죽은 귀신이 씌었나 뭔 놈의 게 지껄이지를 않는다"는 말을 금명이 자신의 첫사랑인 영범에게 똑같이 하는 장면 때문에 시청자들이 잠시 헷갈리긴 했지만, 사실 무쇠 같은 관식의 본질은 "지껄이지를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애순을 위해서라면 집안의 위계질서를 깨고 애순이 있는 밥상으로 돌아앉을 줄 아는 기개와 과감히 분가해서 가부장적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애순을 떼어놓을 줄 아는 용기이다. 부잣집에서 자라 말만 앞서는 영범과 달리 뱃멀미를 하면서도, 관식의 권하는 술에 취해서도, 금명이 걱정되어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충섭. 딸이 "상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을 막 엎는 사람이 되었음 좋겠"다던 애순의 바람은 금명이 영범을 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충섭을 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금명을 향해 국도 제대로 못 뜬다며 핀잔을 주고, 격이 맞지 않는 결혼이니 금명이를 말려달라던 영범의 어머니와 달리 "가을에 친정집에 가 제일 좋은 감을 따다가 드릴 생각하며 한 계절 내내 공을 들였습니다. 예쁜 금명이를 보듯 매일 보고 또 보며 만들었습니다. 저는 금명이가 그렇게도 예쁩니다"라는 충섭 어머니의 카드를 보며 눈시울을 붉힌 것은 애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딸을 둔 어머니들이었을 것이다.

〈폭싹 속았수다〉의 핵심은 '등 두드려주는 손'이다. 관식은 광례의 장례식에서도, 젊은 날 힘들어하던 어느 날에도, 자신의 죽음을 앞둔 어느 날에도, 슬퍼하는 애순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준다. 그 두드려주는 손 너머로는 "웡이 자랑"이라고 읊조리는 자장가가 함께 들려온다. 드라마에서 애순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처음 등장한 것은 광례가 애순에게 유언을 할 때였다. 그러므로 등 두드려주는 손은 애순에게 어머니와 같다. 애순이 관식에게 "두드려"라고 말하는 것은 광례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는 애순의 마음인 동시에, 관식이 광례를 대신하여 인생의 지지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사는 내내 우리 등만 두드려준 아빠"라는 금명의 내레이션을 통해 '등 두드려주는 손'이야말로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순은 유난히 꽃을 좋아한다. 옷도 꽃무늬, 양말도 꽃무늬, 핀도 꽃핀, 온 천지가 꽃이다. 또 평생 시인을 꿈꿨던 오애순의 시집이 출간되고 나서는 "칠십 년짜리 꽃동산"이라고 애순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도 한다. 내가 가진 가치를 충분히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그곳이 바로 꽃밭이라는 메시지다. 그러니 애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광례와 관식과 가족 덕분에 애순의 세상은 온통 꽃밭이었고, 애순의 수만의 날들이 온 천지가 꽃밭인 봄이었다.

애순의 시 〈ㅊㅅㄹ〉에서도 "그래서 내 맘이 만날 봄인가"라고 하고 시집의 표지에도 보이는 〈오로지 당신께〉에서도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라고 한다. 드라마의 오프닝 주제곡 제목이 〈봄〉이고, 금명이 딸 이름도 '새봄'인 것도 그래서이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1951년생 주인공을 통해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적절한 웃음과 문학적 감성을 덧붙인, 그야말로 역사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살아내온 우리 모두에게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싹 속았수다"라며, 그동안 폭싹 속았으니 '장하다'고 위안과 격려의 말을 함께 전한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⑮ 고대소설 속 삼계교

지장신앙 바탕했던 삼계교 고대소설 속 설화에 반영

지난 회까지 고대소설 〈명보기〉와 〈영이기〉에 나타난 삼계교 사상과 활동상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회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명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설화를 비교하면 '명계(冥界)'에 관한 설화군이 적지 않습니다. 명계에 대한 설화가 많은 것은 삼계교의 활동상을 전했던 소설들인 만큼 지장신앙을 기반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영이기〉에 담긴 삼계승 수행 체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진적사 사문 혜여는 어릴 때부터 정근 고행하며 신행에게 사사했는데, 신행 선사의 사후에도 그 법을 잘 받들었다. 수(隋) 대업 때에는 좌선수정(修定)하여, 7일간이나 움직이지 않아 모든 대중들이 감탄했다. 삼매에서 깨어난 혜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본 대중이 물었다. 그에 대해 혜여가 말하길, 염라대왕의 부탁을 받아 7일 간의 행도(行道)가 끝난 날, 왕으로부터 선망지식(先亡知識)을 보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두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염라대왕이 한 사람을 불렀는데, 거북이가 와서 혜여의 발을 핥으며 눈물을 흘렸다. 또 한 사람은 죄가 너무 무거워 부를 수 없다 하였다. 이것을 본 사자는 혜여를 옥문까지 안내했다."

이는 삼계교의 수행승을 통해 인과응보와 중생의 뿌리 깊은 번뇌를 깨닫게 하려 한 설화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보기〉 중권, '목인개(睦仁蓋)' 조(條)의 일부입니다.

목인개가 경(景)에게 물었다. "불법에는 삼세의 인과를 설하는데, 이것은 온당한 일입니까."

이에 경이 "온당합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죽어 제각각 육도(六道)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이가 귀신이 되는 도리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조(趙)의 무령왕과 당신은 아직도 귀신이 되어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경이 되묻기를, "당신의 현(縣)내에 집은 몇 채나 있습니까?" 목인개가 답하길, "만여 호 정도 됩니다."

다시 경이 말하길, "죄수는 몇 명입니까?" "늘 스무 명 이하입니다."

경이 다시 묻기를, "만호 안에 5품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9품관 이상은 몇 명입니까?" "수 십 명입니다.'

이 같은 장황한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지옥의 구조를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명보기〉 저자 당림은 남북조 시기 말 법탁세의 중생이 삼계교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했는지를 기경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보여줍니다. 저자의 저술로 삼계교단의 사상과 활동상은 송대(宋代)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보기〉라는 소설은 육조(六祖)시대의 불교설화집, 불교 홍보를 위한 소설이라는 범주를 넘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상과 생활상을 설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학사적 가치는 분명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이렇듯 삼계교의 사상과 교단의 수행자들의 실천상은 〈명보기〉와 〈영이기〉라는 소설을 통해 면면히 내려왔으며, 후대에 발굴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단초가 됐습니다.

〈송림사 주지〉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